가정상담

4

2019

• 통권 428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상담소는 지난 3월 27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29면)

△ 본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47회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관련내용 22면)

가정상담4월 내지 2019.4.10 4:7 PM 페이지3 CTP-5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접시꽃〉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 ❷
20 • 교육부
22 • 가정폭력상담실
25 • 인터넷 상담
26 • 결혼과 인생(194) 영화 이야기
툴리 _ 김용언
28 • 좋은 책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
29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2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4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기획연재는 쉽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9. 4.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4월 내지 2019.4.10 4:7 PM 페이지4 CTP-5

이 달 의 메 시 지

상담소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입니다 ❷

법률구조를 시작한 민간단체의 역량과 저력을 적극 활용해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통계와 수치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와 가정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문제의 가장 근접한 현장에서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내어 법과 제도와 관습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온 상담소의 역사를 더불어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있어 법률구조의 역할과 의의를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아울러 민간단체로 출발한 상담소가 양성평등을 통한 가정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왔는지 새삼 싱각해 보게 됩니다.

상담소가 민간단체로써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한 것이 1956년, 가정법원에 대한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상담소는 당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여성의 인권회복을 생각했고 양성의 평등과 민주화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 가정문제 전문 법률상담기관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소의 활동이 1987년 법률구조법의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 법에 의거

가정상담4월 내지 2019.4.10 4:7 PM 페이지5 CTP-5

국가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고 1988년 상담소는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법률구조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규모는 비할 데 없이 작아도 이미 한 세대 전에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한 민간단체가 있었고 이 상담소의 역사와 역할이 법률구조법 제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현실에서 당대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률구조사업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민간단체로써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의 모든 부문을 국가가 다 할 수도 없고 다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민간단체가 시작을 하여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잘 해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 뒤늦게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시작한 국가가 만에 하나라도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니 민간은 뒤따라오라는 식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동본혼인금지 철폐, 호주제 폐지, 가정폭력특례법, 이혼제도의 개선, 양육비 이행, 다문화가정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정문제의 주요한 법적, 제도적 쟁점을 제기하여 성과를 이루어 낸 주제들 모두가 최일선에서 상담소가 가장 앞서 문제 제기에 나섰고 법의 개정과 제정을 이끌어 냈던 것들입니다.

상담소는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방의 문제가 상담실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법 개정이나 제정 또는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태도는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에 두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온 민간단체로써 상담소가 가진 큰 장점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1956년 창립 이래 상담소는 민간단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가정문제에 관한 전문 상담기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관료체제의 장점이 있다면 민간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보다 빠르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 할 것 입니다. 한 발 더 진전된 민주정부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민간단체로써의 애로사항에 대한 토로를 거듭하게 된다면 이 또한 너무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역사와 업적을 통해 검증된 상담소와 같은 민간 기관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완전한 복지국가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올 봄 안타까운 고성, 속초 화재사건은 올바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 예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와 정책이 법률구조사업을 비롯해 사회 각 부문에서도 바르게 확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 절대적으로 많으나 다양한 가족구성원 간 폭력 확대되고 여성 행위자도 증가 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상담위탁을 받은 행위자는 총 300명이었다. 2017년에 위탁받아 2018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157명을 포함하면 2018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457명이었으며, 이 중 324명은 2018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18년에 상담이 종료된 324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대가 29.6%로 가장 많아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여성 행위자도 증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부부 외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확대해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4.9%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인 경우 점차 증가해

① 남녀별

행위자 324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56명(79%), 여성이 68명(21%)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41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의 경우 2017년 19.9%(3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2013년 13.6%(8명), 2014년 17.2%(16명), 2015년 19%(24명), 2016년 19%(24명), 2017년 19.9%(34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 행위자 68명 중 56명(82.4%)는 피해자와 부부관계인데, 여성 행위자의 증가는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 행위자들이 남편의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맞대응하거나 반격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인 폭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성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256	79.0	87	26.9
여 성	68	21.0	237	73.1
합 계	324	100	324	100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50대가 29.6%(9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27.8%), 30대(24.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30대가 31.8%(1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25.3%)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 연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 대	–	–	7	2.2
20 대	19	5.9	23	7.1
30 대	79	24.4	**103**	**31.8**
40 대	90	27.8	82	25.3
50 대	**96**	**29.6**	71	21.9
60대 이상	40	12.3	38	11.7
합 계	324	100	324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9.5%(1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7.4%(121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39.2%(1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7.7%(122명)로 나타났다.

구분 /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13	4.0	21	6.5
중 졸	30	9.3	28	8.6
고 졸	**128**	**39.5**	**127**	**39.2**
전문대졸	15	4.6	13	4.0
대 졸	121	37.4	122	37.7
대학원이상	17	5.2	13	4.0
합 계	324	100	324	100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7.2%(8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19.1%(62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4.3%(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0.1%(65명)을 차지했다.

구분 / 직 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34	10.5	**111**	**34.3**
회사원	**88**	**27.2**	65	20.1
단순노무	54	16.6	41	12.7
자영업	62	19.1	34	10.5
교육직	10	3.1	22	6.8
전문직	6	1.9	3	0.9
기술직	17	5.2	9	2.8
공무원	6	1.9	4	1.2
운 전	12	3.7	3	0.9
무 직	33	10.2	16	4.9
학 생	2	0.6	16	4.9
합 계	324	100	324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4.1%(7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1.6%(70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1.6%(13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월 수 입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7	2.2	20	6.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9	18.2	61	18.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8**	**24.1**	55	17.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0	21.6	31	9.6
500만원 이상	51	15.7	22	6.8
일정한 수입이 없음	59	18.2	**135**	**41.6**
합 계	324	100	324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가 261명

으로 80.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14.6%(47명)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녀가 성인 자녀인 경우가 12.4%(40명)를 차지하였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도 남매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장인과 사위 관계, 형제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관계 \ 구분		수 (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237	73.2
	사실혼 부부	24	7.4
	이혼 부부	4	1.2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40	12.4
	부모-미성년자녀 관계	7	2.2
기타 가족관계	남매 관계	5	1.5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3	0.9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2	0.6
	장인과 사위 관계	1	0.3
	형제 관계	1	0.3
합 계		324	100

⑦ 혼인형태별[1]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6.6%(200명)로 가장 많았다.

혼인형태 \ 구분	수 (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200	76.6
(남)재혼-(여)초혼	11	4.2
(남)초혼-(여)재혼	19	7.3
(남)재혼-(여)재혼	31	11.9
합 계	261	100

⑧ 동거기간별[2]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4.9%(65명)로 가장 많았다.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시기로 상대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65명 중 18명(27.7%)은 자녀의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생활태도, 자녀의 학원비와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상당한 결혼기간 축적된 갈등이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22.2%(58명)로 많았다. 결혼초기에 야기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갈등,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 자녀양육 등 결혼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과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과되면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2017년 1.5%(2명)과 비교했을 때 3.5%(9명)로 나타나 2.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14년 1.1%(1명), 2015년 4.8%(6명), 2016년 2.3%(3명), 2017년 1.5%(2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짧은 동거기간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권력의 개입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결혼 초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보다는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막연히 참고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폭력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1)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61명)에 국한하였다.
2)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61명)에 국한하였다.

구 분 / 동거기간	수 (명)	백분율(%)
1년 미만	9	3.5
1년 이상 ~ 5년 미만	47	18.0
5년 이상 ~ 10년 미만	58	22.2
10년 이상 ~ 20년 미만	**65**	**24.9**
20년 이상 ~ 30년 미만	45	17.2
30년 이상	37	14.2
합 계	261	100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9.6%로 가장 많아
다양한 가족관계에서의 폭력 증가
2017년에 비해 재물손괴, 협박 사건 증가
신체적 폭력에서의 행위 유형 변화 :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미한 폭력이 제일 많고,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심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
2017년에 비해 칼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증가

① 폭력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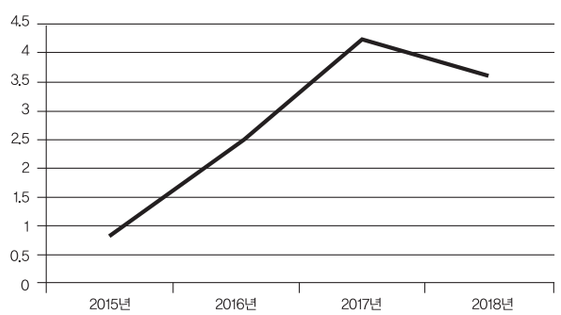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9.6%(19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3]이 11.8%(38명)로 나타났다. 2015년, 2016년,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유형이 형제남매 간뿐만 아니라 시가와 처가관계에서의 폭력으로 확대되었다[4].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해도 참고 살거나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사회변화에 따라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 / 구 분		수(명)	백분율(%)
부부 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193**	**59.6**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30	9.3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26	8.1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5	1.5
	아내 및 자녀폭력	11	3.4
부모-자녀 관계	자녀폭력	27	8.4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1	0.3
	부모폭력	15	4.6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대한 자녀의 맞대응	4	1.2
기타 가족 관계	며느리에 의한 시어머니폭력	2	0.6
	시어머니에 의한 며느리폭력	1	0.3
	시아버지에 의한 며느리폭력	2	0.6
	장인에 의한 사위폭력	1	0.3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3	0.9
	형에 의한 동생폭력	1	0.3
	여동생에 의한 오빠폭력	1	0.3
	여동생에 의한 오빠폭력에 대한 오빠의 맞대응	1	0.3
합 계		324	100

3)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11명, 3.4%)도 포함되었다.

4)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유형은 2015년에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1명, 0.8%), 2016년에 조부모에 의한 손자폭력(1명, 0.6%), 손자에 의한 조부모폭력(1명, 0.6%), 형에 의한 동생폭력(1명, 0.6%),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1명, 0.6%), 2017년에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2명, 1.2%),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2명, 1.2%),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1명, 0.6%), 형에 의한 동생폭력(1명, 0.6%),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에 대한 동생의 맞대응(1명, 0.6%)이었다.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 유형 증가



②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6.3%(312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5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경우도 3.1%(10명)에 달했다.

구 분 / 폭력수준	수 (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312	96.3
1주 이상 ~ 5주 미만	10	3.1
5주 이상 – 10주 미만	2	0.6
합 계	324	100

③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1.6%(16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물손괴[5] 또는 재물손괴를 동반한 폭력사건이 12%(39명)가 많았는데, 이는 2017년의 7.6%(13명)과 비교하여 1.5배 증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6]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5.9%(19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7년의 2.4%(4명)와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처벌이 점차 확대되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

재물손괴 사례

(50대 남성 행위자)
행위자는 피해자가 밥을 해주지 않고 자신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 그릇, 항아리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되게 하는 등 재물손괴를 하였다.

(30대 여성 행위자)
행위자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의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재물손괴를 하였다.

(50대 남성 행위자)
행위자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벌어온다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 놓여있던 텔레비전을 넘어뜨려 액정을 부서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사례

(50대 남성 행위자)
행위자는 주거지 내에서 자녀가 베란다 샷시문 유리를 깬 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일부를 보태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차갑게 거절하자 홧김에 거실에 있던 가정용 헤어드라이기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6)

협박 사례

(40대 남성 행위자)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마트를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키즈카페에 가려고 하자 "마트도 안 갈거면서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가 밖에 나가자 전화통화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느냐, 들어오지 말라, 끝장날거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0대 남성 행위자)
행위자는 주거지 내에서 큰딸 휴대전화를 찾아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내용물이 절반쯤 담긴 음료수 페트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구 분 / 폭 력 수 준	수(명)	백분율(%)
폭행	167	51.6
상해	21	6.5
폭행, 재물손괴	19	5.9
특수폭행	18	5.6
폭행, 특수협박	15	4.7
특수협박	15	4.7
재물손괴	10	3.1
존속폭행	10	3.1
특수상해	8	2.5
존속상해	5	1.5
폭행치상	4	1.2
폭행, 협박	3	0.9
협박	3	0.9
폭행, 감금	2	0.6
특수재물손괴	2	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	0.6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2	0.6
상해, 폭행	1	0.3
존속폭행, 폭행	1	0.3
존속상해, 상해	1	0.3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0.3
특수상해, 폭행	1	0.3
강제추행, 폭행	1	0.3
상해, 강간	1	0.3
상해, 재물손괴	1	0.3
재물손괴, 협박, 상해	1	0.3
폭행, 재물손괴, 존속폭행	1	0.3
협박, 특수협박	1	0.3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1	0.3
재물손괴, 폭행, 협박	1	0.3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1	0.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1	0.3
재물손괴, 폭행, 강간미수	1	0.3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1	0.3
합 계	324	100

④ 폭력행위의 정도[7]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행위자 324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적 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6.7%(281명)나 되었다. 경미한 폭력의 다섯 가지 항목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51.5%(16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1년 2.9%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09년 15.2%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 위험한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통제하려 들었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를 획득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다. 실제로 상담위탁된 행위자 중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폭력없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수준의 폭력행위만을 행사한 경우 상담현장에서 강한 저항감을 보이며 자신은 폭력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정서적 폭력 또한 피해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7)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언어폭력(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5문항), 심한 신체폭력(6문항)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항 목	폭력동반 유무	
	없음	있음
언어 폭력	**–**	**324(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324(100)
경미한 폭력[8]	**43(13.3)**	**281(86.7)**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57(48.5)	167(51.5)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240(74.1)	84(25.9)
4.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253(78.1)	71(21.9)
5.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160(49.4)	164(50.6)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170(52.5)	154(47.5)
심한 폭력[9]	**96(29.6)**	**228(70.4)**
7.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85(57.1)	139(42.9)
8. 피해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290(89.5)	34(10.5)
9.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15(66.4)	109(33.6)
10. 피해자 목을 졸랐다.	281(86.7)	43(13.3)
11.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253(78.1)	71(21.9)
12.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254(78.4)	70(21.6)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0.4%(228명)로 나타났다. 심한 폭력의 여섯 가지 항목 중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 가 42.9%(1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심한 폭력은 항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3년 75.4%에 비해 2018년에 42.9%로 나타나 1.7배 이상 감소하였고, 10년 전인 2009년 72.7%에 비해 1.6배 이상 감소하였다.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 2017년 77.8%(133명)에 비해 2018년 70.4%(228명)로 다소 감소하였고, 대부분 항목의 폭력행위[10] 역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는 2017년 15.8%(27명)에서 2018년에 21.9%(71명)로,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 는 2017년 15.2%(26명)에서 2018년에 21.6%(70명)로 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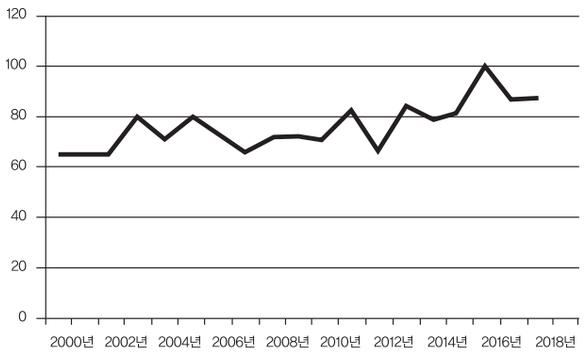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폭력인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정도' 에서부터 심한 폭력인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하는 정도' 에 이르기까지 양극단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한 신체적 폭력은 다소 줄고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경미한 신체적 폭력에도 민감하게 반응, 대처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한 폭력이 가족구성원에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 2-6번 문항 중 하나라도 '있다' 고 응답한 경우 경미한 폭력이 있다고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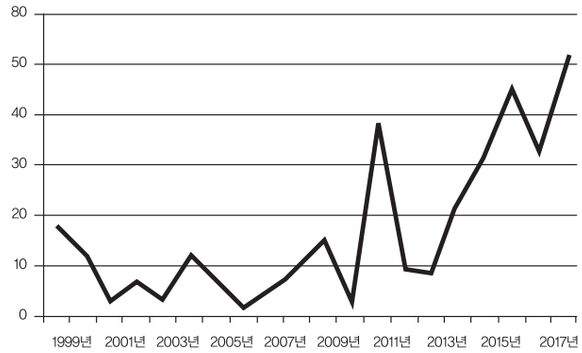
9) 7-12번 문항 중 하나라도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심한 폭력이 있다고 처리하였다.

10) 심한 폭력 각 항목의 폭력행위는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피해자 목을 졸랐다',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등 여섯 가지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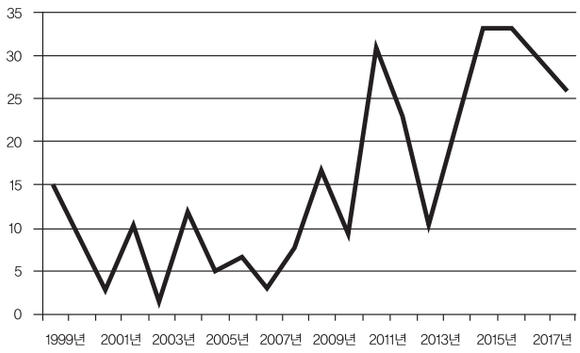
〈 경미한 신체적 폭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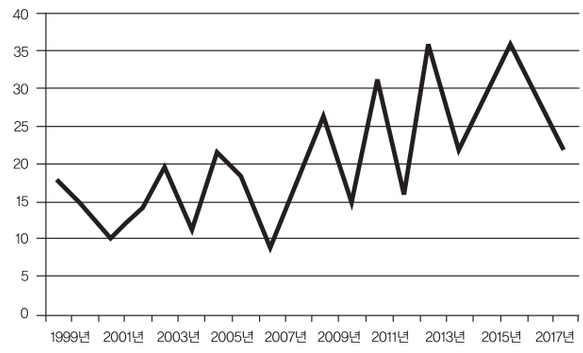
〈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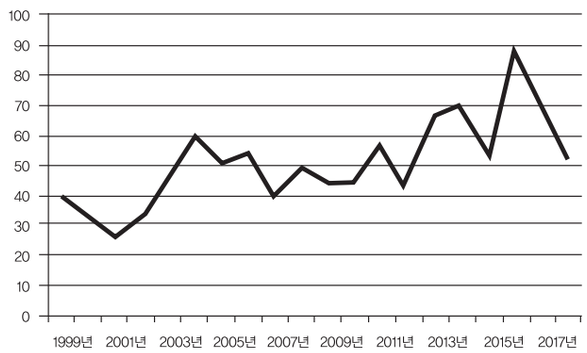
〈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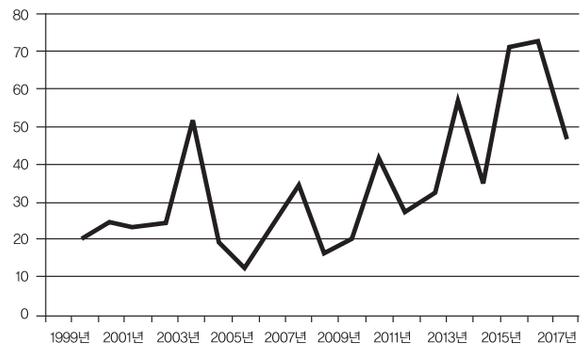
〈 4.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



〈 5.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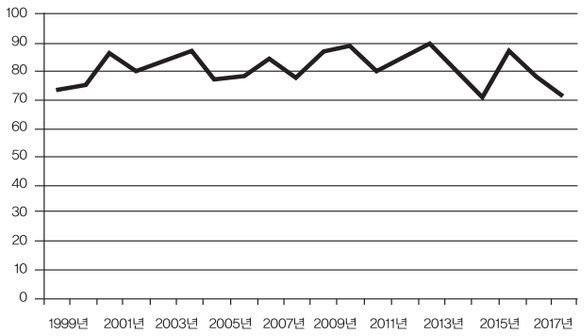


〈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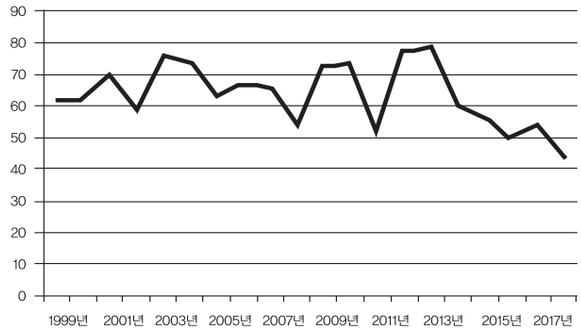


1999년 – 2018년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항목별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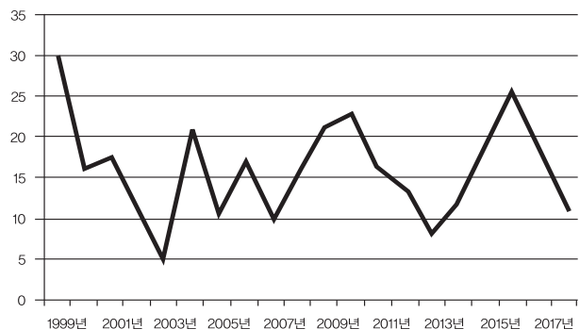
〈 심한 신체적 폭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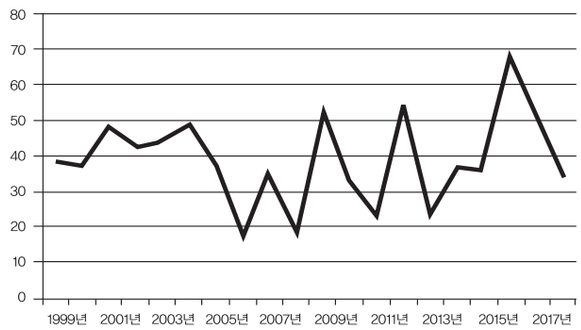
〈 7.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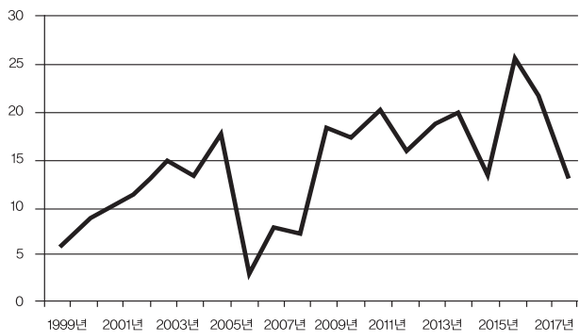
〈 8. 물건으로 때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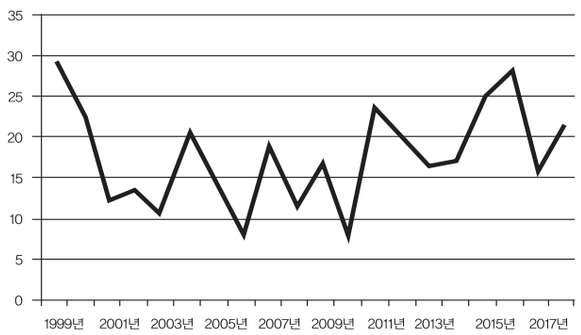
〈 9.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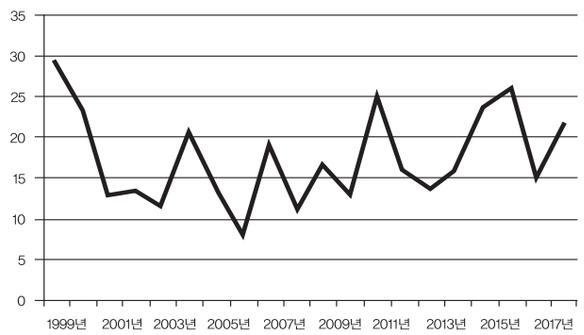
〈 10. 목을 졸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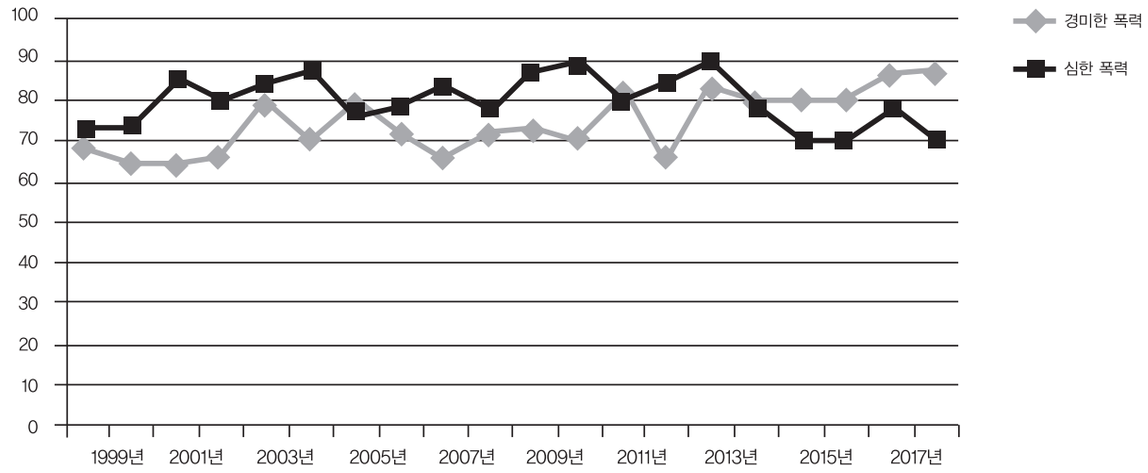
〈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



〈 12.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



1999년 – 2018년 심한 신체적 폭력의 항목별 추이 분석



1999년 – 2018년 경미한 폭력과 심한 폭력 비율 변화 분석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폭력행사 원인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부부간 불신 → 행위자 음주 순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는
가부장적 사고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자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차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여성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사 원인
증가

① 폭력행사 원인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41.3%, 263건), 부부간 불신(13.8%, 88건), 행위자 음주(11.8%, 75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41.3%, 263건)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나와 다른 구성원들 간에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고 틀 안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임무를 융통성 없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때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성격이 다르다'는 갈등표현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편향된 남편 또는 부모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 또는 자녀, 기타 가족구성원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자녀양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45건, 17.1%).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고(18건, 6.8%),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자녀의 생활태도, 자녀의 학원비와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18건, 6.8%). 한편 성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되면서 야기되는 갈등을 배우자 탓

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9건,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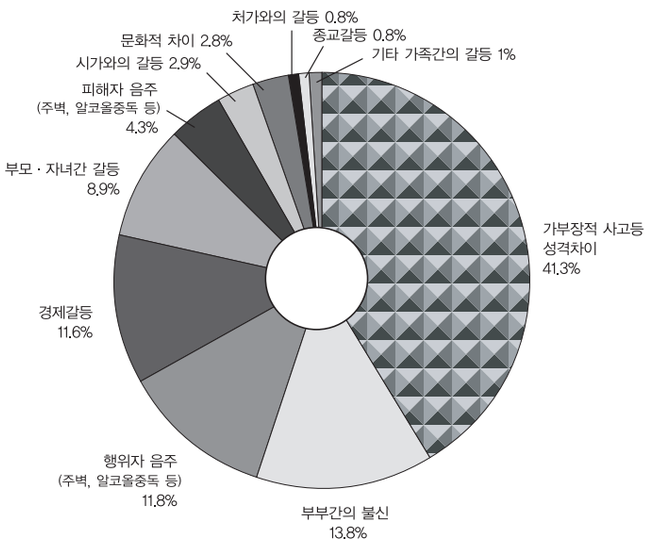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3.8%, 88건)이다. 남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잦은 회식자리 참석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강간, 감금 등을 통해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3건, 3.4%).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의 음주(11.8%, 75건)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건은 남성 행위자였다(86.7%). 전체 행위자 324명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21.9%(71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4.3%(28명)을 차지하였다. 이들 중 14명은 여성 행위자로 피해자인 남편의 음주문제, 즉 술 마시고 들어와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구성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머지 14명은 남성 행위자로 피해자인 아내의 음주문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음주문제는 남편의 폭력과 음주, 외도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성장기에서 결핍된 감정들을 술에 의존하여 해결 또는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부부갈등 내지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분 / 폭력행사 원인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263	41.3
부부간 불신	88	13.8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75	11.8
경제갈등	74	11.6
부모-자녀간 갈등	57	8.9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28	4.3
시가와의 갈등[11]	19	2.9
언어 등 문화적 차이	18	2.8
처가와의 갈등[12]	5	0.8
종교갈등	5	0.8
기타 가족간의 갈등[13]	6	1.0
합 계	638	100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폭력행사 원인

11) 시가와의 갈등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3건, 0.5%),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갈등(2건, 0.3%)을 포함하였다.
12) 처가와의 갈등에 장인과 사위와의 갈등(1건, 0.2%)을 포함하였다.
13) 기타 가족간의 갈등에 누나와의 갈등(3건, 0.5%), 동생과의 갈등(2건, 0.3%), 오빠와의 갈등(1건, 0.2%)을 포함하였다.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피해자 등 상담 병행 80.9%
행위자 중 83.3%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0.9%(262명)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주문한 경우가 13.6%(44명)에 달했다.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62	19.1
행위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상담	**262**	**80.9**
합 계	324	100

② 상담방법별

2018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18년도에는 2,505건의 개별상담, 157건의 부부상담, 62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18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로 207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5회로 68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행위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을 별도로 상시 운영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2회 실시되었으며, 총 293명이 참석하였다. 부부 집단상담은 총 51회 실시되었으며, 총 210명이 참석하였다. 자녀폭력 행위자 부모 대상 집단상담은 총 11회 실시되어 총 28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미술심리치료집단상담은 총 24회 실시되어 29명의 폭력노출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둥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둥지교실' 이라는 이름에는 가정폭력 등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둥지' 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2018년도에는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전달하기 위하여 점검하고, 해결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회의 둥지교실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447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3월과 10월에 총 2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행위자 부부 51쌍과 그 자녀 35명 등 총 137명이 참석하였다. 부부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도에는 총 457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도에는 20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총 19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라오니 모임이 확장된 라오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라오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라오니 캠프에는 총 18명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참석하였다.

2018년에 상담이 종료된 324명 중 83.3%(270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구 분 /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	54	16.7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49	15.1
개별상담 · 집단상담	34	10.5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87**	**57.7**
합 계	324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폭력중단
부부는 상담종료 이후 54.8%가 화해 · 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261명의 상담 종료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8.9%(258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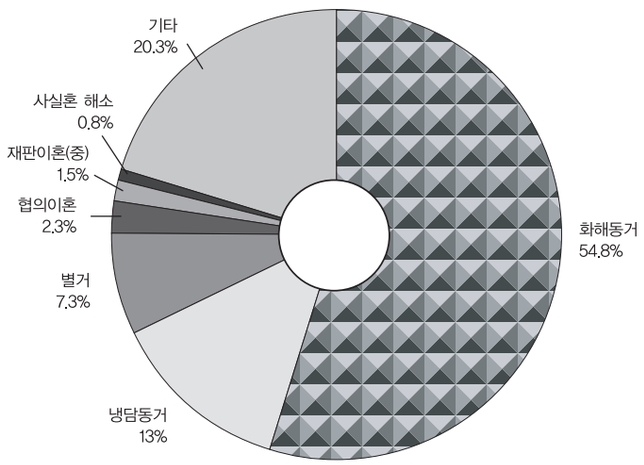
구 분 /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 (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258**	**98.9**
폭력재발 함	3	1.1
합 계	261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4.8%(143명)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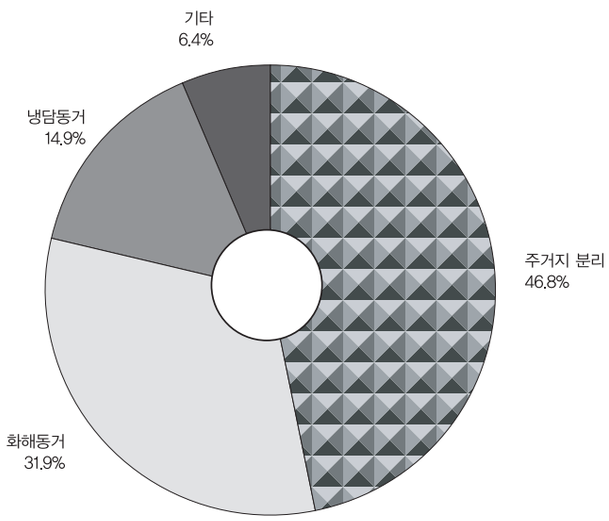
구 분 /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 · 동거	**143**	**54.8**
냉담 · 동거	34	13.0
별 거	19	7.3
협의이혼	6	2.3
재판이혼(중)	4	1.5
사실혼 해소	2	0.8
기 타[14]	53	20.3
합 계	261	100

14) 기간연장(13.8%, 36명), 보호처분 변경(5.7%, 15명), 행위자 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보호처분 취소(0.8%, 2명) 등을 포함하였다.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구 분 /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수 (명)	백분율(%)
주거지 분리	22	46.8
화해 · 동거	15	31.9
냉담 · 동거	7	14.9
기 타[15]	3	6.4
합 계	47	100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② 부모자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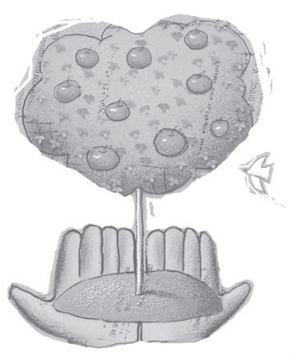
가.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28명),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폭력의 재발은 한 명도 없었다.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46.8%(2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31.9%(15명)로 나타났다.

차연실 상담위원



16) 보호처분 변경(2.1%, 1명), 기간연장(4.3%, 2명) 등을 포함하였다.

“며칠 전부터 에버랜드 호랑이랑 사자보러 간다고 신나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휴일을 보내다가 아이와 놀이동산에 오고 아이의 환한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여러 이유로 놀아주지 못하고 늘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40명, 자녀 45명
  조은경, 천다라, 유혜경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애란네트워크 · 달빛둥지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11명
- 지 원 : 삼성생명 사랑의 열매

오랜 만에 미세먼지 없는 금요일 삼성생명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본소에서는 비혼모 40 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용인 에버랜드로의 소풍이라 아침부터 출발을 서두를 수 밖에 없어 엄마들과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이른 시간임에도 아이들과 엄마들의 즐거움에 들떠있는 표정을 보며 이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1박 2일 캠프로 진행되었던 비혼모가정을 위한 캠프를 1일 캠프로 변경하게 된 것은 보다 많은 시설과 시설 밖에 있는 지역사회의 비혼모가정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과 경기권역에 있는 한부모가정시설과 지원센터, 공동체에 홍보를 하고 일간지와 가정상담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덕분에 이번 캠프에 대한 문의와 관심은 예전보다 더 많았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혼모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시설에 있는 비혼모에 비해 이러한 지원과 정보에 대한 제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캠프를 통해 그 길을 알아가는 것은 캠프 체험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에버랜드에 도착하여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법률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인 사파리월드에 Q-PASS로 입장하여 관람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1박 2일의 캠프를 1일 캠프로 진행하며 다소 꽉 찬 일정에 힘들지는 않을까, 에버랜드 체험이 짧아 아쉽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고,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 · 정서적 지지와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캠프도 보람되게 마무리하며 아쉬움은 다음 캠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 프로그램 개관

1. 「비혼모 가정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

에버랜드에 도착하여 참가자들은 대강당에 모여 비혼모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 후에는 인지, 양육비 청구, 파산 · 면책 등의 법률 상담이 있었다. 교육 후 상담을 신청하는 엄마들이 많아 이러한 교육과 상담의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상담 후에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 「용인 에버랜드 체험」

참가자들은 교육 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을 하였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사파리월드' 외 다양한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 호스텔 내 객실에서는 탁아방 및 모자휴게실을 마련하여 엄마와 자녀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 참가자들의 소감

평소에 자녀는 학교에, 엄마는 직장에 다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자원봉사들의 도움으로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 법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비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연하기만 했는데 인지부터 양육비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시고 적절한 예시를 잘 안내받아 도움이 되었다 등의 후기가 있었다.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상담4월 내지 2019.4.10 4:7 PM 페이지22 CTP-5

제47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 보고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함께 손잡고 늙어가는 부부가 되기

- 일 시 : 2019년 3월 23일 ~ 24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본관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25쌍과 자녀 18명 포함 68명
- 강 사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정지혜 · 이윤정(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이민정 선생님 외 자원봉사자 7명

I. 프로그램

1.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한 이후, 이서원 소장은 캠프를 통해 '서로가 서운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 점이 서운했을까'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2)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어디쯤일까 : 성숙의 단계'

1)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 '건강한 성숙'

이서원 소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있는 사례 하나를 공유하였다. 아내가 오랫동안 외도를 했으나 이를 모른 채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남편의 사례였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남편을 배신한 아내가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일하느라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아 아내를 외롭게 한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누구나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살지만, 남에게도 그 욕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였다. 아이 단계가 넘어서면 인간은 성숙하지만, 남과 자기의 욕구를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정과 상관없이 취미활동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것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욕망을 다 볼 때 말할 수 있다.

 # 사례 1 :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서원 소장은 '건강한 성숙'에 대한 짧은 강의를 마치고

30대 젊은 부부에게 질문하였다. 남편은 본인이 병적으로 성숙하다고 대답하였고, 아내는 본인이 미숙한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어떤 어른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주는 것이다.

 # 활동 1 : 우리 부부는 어디쯤일까

캠프에 참석한 부부들에게 "우리와 같은 나이대의 부부가 100쌍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 부부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를 생각하여 자신들의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했다. 이어서 부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 부부가 더 나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사례 2 :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서원 소장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물었다. 아내는 "좋은 환경을 가진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해심과 관심사 공유"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날 기회라는 점도 당부했다.

2) 사람은 누구나 미움을 싫어한다 : "여보,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혼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밖에 못해? 당신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배우자에게는 "여보,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이니까 그 정도 한거야."로, 또한 힘든 자신에게는 "나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게 최선이었던거야."로 바꿔서 말해보면 어떨까?

2. 둘째 날 오전 강의

(1) 손잡고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되려면 : 3가지 비결

이서원 소장은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한 3가지 비결을 공유했다. 첫째, '너만'을 '너도'로 바꿀 것. '너만'이라는 말 속에는 너보다 내가 힘들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타인의 힘듦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너도'로 바꾸면 달라진다. 나의 힘듦과 당신의 힘듦을 같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둘째, 남편은 방파제가 될 것. 남편은 아내를 시가로부터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시가로부터 보호하면 아내가 고마워서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될거야'라고 말하기. 일 혹은 자식문제가 힘들 때 "이제 어떻게 할거야?"라는 말 대신 "어떻게든 될거야. 이겨낼 거야."라고 말해야 함께 힘낼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

(2)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서원 소장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과 더불어 자식을 훌륭히 키우는 방법도 전달했다. 첫째, 관찰이다. 아이가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관찰을 통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둘째, '안 된다'가 아니라 '괜찮다'고 해야 한다. 아이가 가진 단점, 혹은 아이에게 닥친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로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괜찮을거야."라고 말해야 아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예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부모 모두 같다. 그러나 아이를 방치하거나 버릇없는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나의 욕망의 크기만큼, 남의 욕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인생은 경험을 줍는 것'

이서원 소장은 부부의 3가지 비결과 자식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지키면 나이가 들어 손잡는 부부가 될 수 있고, 자식으로부터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생이란 살면서 경험을 줍는 것이고, 경험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3.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유아 프로그램

▶ 강사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정지혜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보육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4~7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이완한 후, '봄바람 휘리릭'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알록알록 꽃놀이' 활동을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하며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My Dream' 활동을 통해 자기감정 및 자기표현을 촉진시켰으며, '드림캐쳐'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I can do it!' 활동을 통해 집단 응집력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석한 유아들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미술작업과 신체놀이의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 강사 : 이윤정(미술심리치료전문가)

이윤정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8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을 통해 집단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공간' 활동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색으로 비치백을 꾸며보았고, '소망상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마음의 종소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도자기 종을 만들어보았고, '나를, 너를 사랑하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칭찬하면서 지지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참석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미술표현을 통해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었고, 다른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II. 정리

이번 캠프에서는 부부가 자신을 먼저 알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부부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힘든 시간을 보낸 부부에게도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인생은 경험을 줍는 일이기에 부부가 보낸 힘든 시간도 인생을 걸어가며 줍게 된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는 온전히 부부의 몫으로 남겠지만, 이번 캠프가 참석한 부부들에게 힘든 경험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과 배려를 얻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차연실 상담위원

인·터·넷·상·담

Q

저는 20년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함께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은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저와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남편을 만나 결혼 하였고, 남편은 아이를 친양자입양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친양자입양허가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이와 관련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아이와 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아이의 생부는 아이에게 재산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를 찾아와 아이와 만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태어나게 된 경위와 자신이 친양자입양 된 사실도 모두 알고 있으나, 아기 때 헤어진 이후로는 생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와 아이의 생부가 이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들로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부는 제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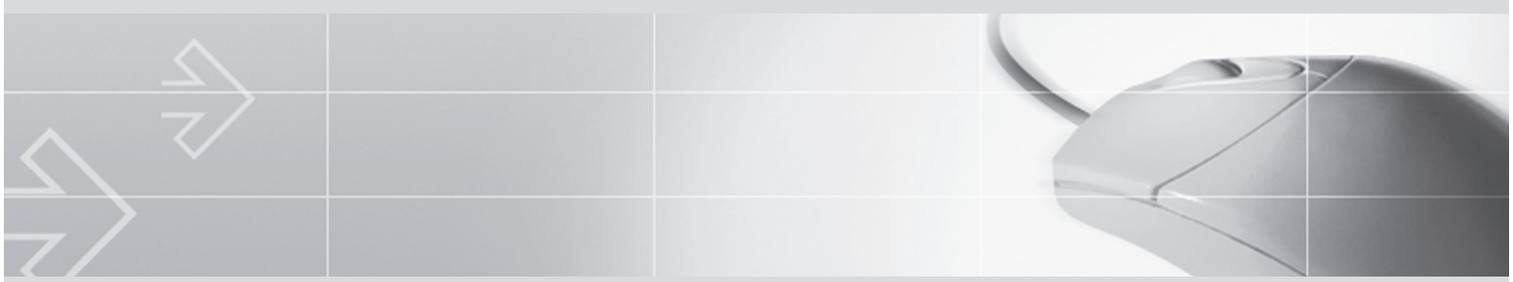
A

일단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인정되는 권리이며,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모와의 면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따라서 아이의 생부는 더 이상 아이와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아이의 생부가 아이의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가처분 등은 어렵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영화이야기

툴리

감독 제이슨 라이트맨

출연 샤를리즈 테론, 맥켄지 데이비스, 론 리빙스턴

마를로(샤를리즈 테론)는 셋째 아이의 출산 1주일 전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제야 출산 휴가를 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첫째 딸 새러와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둘째 아들 조나, 일에 지쳐 귀가하면 게임에 빠져 사는 남편 드루(론 리빙스턴)까지, 마를로가 돌봐야 하는 이들은 너무 많다. 드디어 셋째 미아가 태어나고, 마를로는 지옥 같은 육아 전쟁에 끝없이 시달린다. 결국 오빠의 권유로 야간 보모 툴리(맥켄지 데이비스)를 고용하고, 나이는 어리지만 놀라운 친화력을 지닌 툴리의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덕분에 마를로는 조금씩 변화한다.

줄거리를 여기까지 듣는다면 아마 이후의 이야기 진행은 뻔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다정한 자매애를 통해 괴로운 독박 육아를 극복하고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파스텔 톤의 예쁜 화면과 귀여운 아기들의 클로즈업, 귀에 거슬리지 않는 감미로운 사운드트랙으로 최대한 '치장'하고 있지만, 〈툴리〉는 독박 육아와 산후우울증이 한 사람을 얼마만큼 갉아먹고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고서다.

마를로는 세 번이나 '다른' 엄마와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을 씁쓸하게 기억하며, '내 아이에게만은 절대 그런 쓰라림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신념으로 슈퍼우먼의 일상을 감내한다. 한 시간마다 신생아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유를 먹이다가 유두를 물어뜯기고, 요람에 연결된 스피커를 손에 꼭 쥔 채 토막잠을 자고, "냉동피자 참 맛있겠네."라는 원망 섞인 가족들의 투정을 견뎌내며 대충 끼니를 차리고, 아침마다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전쟁을 치른다. 만성적인 수면부족과 과로를 견뎌내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남편과 아이들의 안녕을 유지하고 이토록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의 유지가 실은 대단한 행복이라고 스스로의 지친 영혼을 달랜다. 이런 행복을 흔들림 없이 가꾸는 것이 엄마–양육자의 목표이며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그러다가 눈부시게 젊은 툴리를 보며 잊고 있던 과거를 돌

이킨다. "20대는 꿈만 같죠. 그러다가 새벽의 쓰레기차처럼 30대가 와요. 임신할 때마다 엉덩이와 발이 반 사이즈씩 커져요." 그리고 냉소적으로 덧붙인다. "여자들은 치유되지 않아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컨실러 범벅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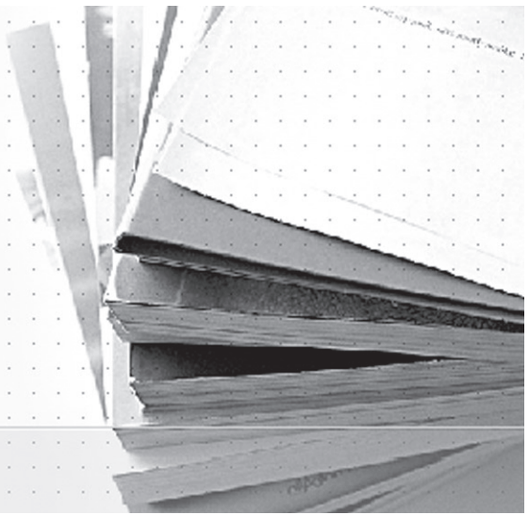
〈툴리〉는 '엄마'를 향한 전통적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직전까지 치닫는 여성의 내면을, 판타지의 도움을 빌어 부드럽게 묘사한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리얼리즘 드라마였다면 거의 호러에 가까운 고통으로 점철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모성이라는 건 없다.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종류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양육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여성들이 존재할 뿐이다. 〈툴리〉는 엄마라면, 그리고 아내라면 늘 포용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 앞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엄마와 아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허둥거리는 상황을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엄마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 사이에 어떻게든 타협적인 균형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엄마 혼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노력과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누구나 다 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각본가 디아블로 코디와 감독 제이슨 라이트맨 콤비는 10대 미혼모의 이야기 〈주노〉, 상처받은 현재를 거부하고 자꾸 빛나던 청춘의 과거에 집착하는 성인 여성의 이야기 〈영 어덜트〉에 이어, 부모가 된 자신들 각자의 경험담을 녹여 넣은 영화 〈툴리〉로 돌아왔다.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위해 수많은 엄마들을 인터뷰하며 육아와 가사의 고단함에 대한 디테일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한다. 아기가 겨우 잠들었는데 한손으로 요람을 흔들며 다른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그걸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라든가, 모유 유축을 끝내고 잠깐 뒤돌아선 순간 모유를 담은 비닐팩이 넘어지는 바람에 내용물을 몽땅 쏟는 장면 등이 그렇게 세심하게 반영된 순간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은 그 장면들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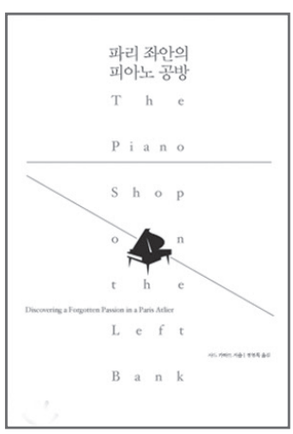
좋은 책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

사드 카하트 지음 정영목 옮김

뿌리와이파리, 2018



국민학교 6학년 때, 새로 이사한 집에 피아노가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이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 옆, 맞춤인 듯 피아노가 놓일 자리가 있었고 피아노는 그 자리에 안착했다. 나무색의 Y 피아노가 갖고 싶었지만 – 그냥 색이 예쁘고 피아노 학원에는 잘 없는 것이었고 어른들이 Y 피아노가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검은색의 S 피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집을 나보다 오래 지켰다. 지금 생각하면 피아노에게 한 없이 미안해지는데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 피아노를 열심히 치지 않았다. 어쩌면 새 집에 어울리는 혹은 있어야 할 좀 비싼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또 생각하면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던 스무 살 넘었을 무렵 그 때 다시 열심히 피아노를 시작했어도 내 삶을 조금은 더 풍요롭게 해 주기 위해서라면 결코 늦은 것은 아니었는데, 늦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여름방학 때 모처럼 피아노 앞에서 김민기의 '친구'를 쳐보던 기억이 난다.

이 아름다운 책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을 읽으면서 오래 전 늦은 여름에 뚱땅거리던 '친구'를 떠올렸다. 이제 다시 피아노를 칠 생각은 없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부제는 '파리의 한 공방에서 잊었던 정열을 발견하다'는 것이다. 파리에 살고 있는 저자 사드 카하트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쳤지만 계속하지는 못했고 어린 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다 발견한 동네의 작은 피아노 공방에서 공방의 새 주인이 된 뤼크와 피아노를 사이에 두고 우정을 맺으며 다시 피아노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뤼크는 공방의 책임자이며 피아노의 역사와 기술적 측면, 예술로 이끄는 뛰어난 안내자이다. '스타인웨이 앤 선' 혹은 '파지올리' 정도나 알았는데 플레엘이나 베흐슈타인 그리고 저자의 연인이 된 베이브 그랜드 슈팅글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는 또한 넓고 깊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읽는 내내 좋아하는 백건우의 베토벤이나 김정원의 슈베르트 그리고 손열음의 라흐마니노프가 머릿속을 떠다니는 경험을 했다. 옮긴이는 꿈과 환상 혹은 너무 늦게 도착한 꿈에 대한 환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았지만 그저 피아노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피아노와 벌인 달콤한 연애담, 고전으로 자리 잡기에 손색없다" 라는 타임스 리터러리 서틀리먼트(런던)의 평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저자 사드 카하트는 예일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을 다녔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연예사업 컨설턴트로 일하다 유럽으로 돌아와 오랜 기간 파리에서 아내, 두 자녀와 살고 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2019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7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 사진 2면)

본소, 과천시여성비전센터와 여성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3월 11일 본소와 과천시여성비전센터(신연희 센터장)는 본소 강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본소와 센터는 여성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과천시여성비전센터에서는 신연희 센터장, 조정수 팀장, 서율라 주임, 박애란 직원, 박국자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2019년 3월 20일부터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과천시여성비전센터 내 상담실에서 본소 상담위원들의 순회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3월 28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강의주제는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 으로, 강사는 최고의 긍정적인 감정인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인간은 타인, 특히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사가 소통의 중요성을 실제 가족 갈등의 예를 설명해주어 이해가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4월 25일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상담4월 내지 2019.4.10 4:7 PM 페이지30 CTP-5

2019년 지부위원회 개최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관심과 민간 법률구조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의 변경 가능성 등 민간 법률구조기관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소 본 · 지부관계에 관한 변화 방향 모색을 위해 3월 27일 오후 3시에 2019년 지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차명희 이사장과 곽배희 소장, 김명순 이사 그리고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복미영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지부관련 간담회

지부위원회에 앞서 지난 3월 25일에는 지부관련 간담회가 곽배희 소장, 조대연 이사, 임재연 이사, 최문원 감사, 정미화 변호사, 천정환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3.7. 강서지역자활센터 – 가족법 및 신용회복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3.20. 과천시여성비전센터 – 순회상담
– 조은경 상담위원

3.22. 아동보호 · 가정보호 재판 법관 연수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3.25. 가정위탁지원전문상담원교육
: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
– 김민선 변호사

3.27. 영등포 보현의 집 –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
– 전규선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21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회에 참석하였고, 22일에는 대법원예산담당관실의 김남훈 사무관 및 김종인 행정관,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한준 센터장 및 장광남 전문연구원 등과 함께 소송구조 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미영 상담위원이 같이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21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회에 참석하였고, 22일에는 사법연수원의 가정보호 · 아동보호재판실무 법관연수에서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28일에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김용대 신임 서울가정법원장과 환담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3월 12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명애 신임 관장과 박은혜 상담원의 방문을 받고 본소가 법률구조 지원을 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의 업무협력 방안 및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6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신임 김용대 법원장과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본소의 가정법원 출장상담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협력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였다.

2019년 3월 본부 상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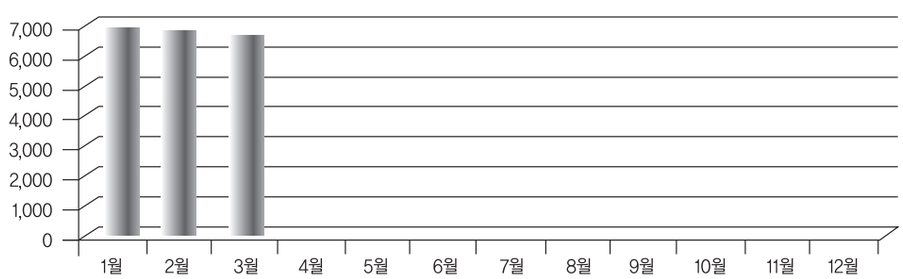
총상담 6,515					
법률상담 (5,968)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서신	지상
1,009	4,734	205	18	1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90		120		37	

2019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515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968건(91.6%), 화해조정 390건(6.0%), 소장 등 서류작성 120건(1.8%), 소송구조 37건(0.6%)이었다.

법률상담 5,96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9%→1.3%), 부부갈등(2.9%→3.9%), 사실혼해소(1.2%→1.3%), 양육비(7.3%→9.0%), 면접교섭권(2.3%→2.6%), 인지(1.3%→1.7%), 친생부인(0.9%→1.2%), 친생자존부(2.5%→2.7%), 부양(1.7%→1.8%), 가족관계등록부(3.4%→4.0%), 미성년후견(0.4%→0.5%), 성년후견(2.7%→2.8%), 가사절차(4.5%→5.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0.5%→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3%→0.4%),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96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09건(16.9%), 전화상담 4,734건(79.3%), 인터넷상담 205건(3.4%), 순회 18건(0.3%), 서신 1건(0.0%), 지상 1건(0.0%)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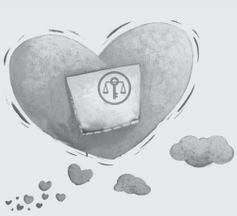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윤영, 강종협, 경수현, 김지후, 박수열, 박은정, 신수경, 안서연, 오현희, 윤원섭, 이혜민, 이효재, 전병규, 조진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김진아, 류현정, 심미숙, 이승주, 전성배,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경은, 계승현, 고원지, 김경민(1), 김경민(2), 김동은, 김세현, 김소희, 김송희, 김수연, 김준성, 김지우, 김채린, 김하영, 김혜원, 남윤종, 노규림, 문채현, 박범근, 박소언, 박지원, 박채늬, 반민지, 배상준, 백지연, 엄윤서, 오정훈, 윤도경, 이다경, 이승철, 이원정, 이은현, 임희진, 손준호, 정윤정, 조주현, 조태현, 진수연, 최유림, 최유진, 최희원, 황인경 님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권지연, 이민정, 최은아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3월 8일 강릉 대학로 일대에서 '3 · 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3월 5일, 7일, 12일, 19일, 21일,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여지은, 장경아, 정수경,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42건의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회, 28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3월 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6일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지수 UP UP! 사업으로 "우리가족 하나 되기"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엄요한, 나만수, 이성관, 최은철, 권중한, 전상훈, 박진수, 남지현, 상무균, 김영심, 박경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5회, 광주시법원 2회(총 36명)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 내소 상담 1회를 실시하였다. 이수연, 이유리 변호사가 소송구조 봉사를, 송지민, 이수연, 이유리, 이혜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3월 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정혜, 서정식, 손난주, 한준엽, 한승일, 이윤선, 구민혜, 박진호, 김현명, 강은혜, 박진우, 김현수, 최성중, 황미옥, 전태우,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3월 5일, 19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4회, 협의이혼상담 2회를 실시하였다. 11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18일 국민연금공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박형윤, 서보람, 정아람,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3월 22일 중구 관내 지구대 및 공공기관 대상 가정폭력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박진석, 장상현, 홍지혜, 유진, 박은정, 정형준, 이동건, 황은하, 이효재, 김영옥, 박수열,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3월 5일 청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9년 2월 지부 상담통계

구분 / 지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34	132	1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59	47	109		3
군산 (063) 442-1560	125	110	12		3
대구 (053) 745-4501	647	543	104		
대전 (042) 520-5258	171	168		3	
동해 (033) 535-0188	106	106			
목포 (061) 273-2514	135	132			3
부천 (032) 667-2314	389	188	201		
성남 (031) 707-6661	305	228	69	3	5
송도 (032) 834-1369	207	67	128	4	8
수원 (031) 243-4600	312	257	55		
순천 (061) 753-9910	160	149	10		1
안동 (054) 856-4200	74	69	5		
울산 (052) 246-9568	109	91	13	2	3

구분 / 지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264	264			
인천 (032) 865-1120	221	135	84	2	
전주 (063) 244-2930	211	203	7		1
정읍 (063) 535-3705	102	101		1	
제천 (043) 644-5690	88	88			
중구 (02) 2238-6554	231	230			1
진주 (055) 746-7975	104	85	19		
창원·마산 (055) 261-0280	253	229	23	1	
청주 (043) 257-0088	127	104	13	10	
춘천 (033) 257-4688	187	187			
태백 (033) 554-4004	37	37			
평택·안성 (031) 611-4251	168	136	22	10	
포항 (054) 283-7555	48	47			1
지부총상담	5,074	4,133	875	36	30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8-168

담당 : 한정이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9세)는 2000년 4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7세, 여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퇴근 후에도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았다. 2017년까지 건축설계 일을 하던 피고는 원고 모르게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고 실직상태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해서 채무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박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는 2018년 2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현재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원고는 남편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두 자녀와 안정적으로 살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11.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8.11.3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희귀난치병을 앓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76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6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성실히 저축을 하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2011년경 부친이 위암수술을 받고 2013년경 모친이 담낭암수술을 받으면서 생활비가 과다 지출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던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이후 힘겹게 채무상환을 해나가던 신청인에게 지인이 찾아와 동업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은 고심 끝에 2,0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다. 적은 금액을 투자한 대신 식당 운영을 맡는 조건이어서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일하였고, 그 노력 덕분에 매출이 상승하였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동업자가 자주 식당을 찾아와 신청인 모르게 직원들을 불러 회식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신청인은 고민 끝에 동업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마음을 다잡고 다른 곳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

며 채무상환을 해나갔다. 그러던 중 2016년경 신청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손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고통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큰 병원에 가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에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다. 2018년경에는 고통을 덜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척수전기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수시로 응급실에 가야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더 이상의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2.28.)
채무자를 면책한다.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306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1세)은 2002년경 고시원에서 힘겹게 생활하던 중 혼인하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배우자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였고 신청인은 참다못해 집을 나와 연락을 일절 끊고 살았다. 신청인은 꾸준히 저축을 하여 처음으로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금체납고지서와 압류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기 시작하였다.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사용하고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것이었다. 또한 신청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해본 결과, 이 역시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 배우자는 신청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의 명의를 함부로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채무가 늘어난 신청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 및 치료중이며 기초생활수급비 약 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도용을 당해 억울하게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이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1.18.)
채무자를 면책한다.

가출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던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던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8-368
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등

내용 : 청구인(여, 59세)은 사건본인들(남 12세, 10세)의 조모로 사건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친부, 친모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친부모가 모두 가출한 2012년경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은 친부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상대방(남, 33세)이 혼인관계 중에 낳은 자녀들로 각각 그 친모가 다르다. 사건본인 1은 생후 2개월 되던 때 청구인에게 처음 맡겨졌고 그 친모는 아이를 맡긴지 얼마 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다. 사건본인 2는 청구인의 아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친모 역시 아이를 맡긴 후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 곧이어 친부마저 가출하고 연락을 끊어 지금까지 청구인 부부가 전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상황이다. 최근 사건본인들의 친부는 가출 후 재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사건본인들이 성장하면서 법정대리인 부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친권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해지자 청구인은 친권자인 부에 대한 친권상실 및 청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

임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2018.11.22.)

1.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 ·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소송행위(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9.1.31.까지 사건본인들의 재산목록[기준일: 2018.11.30.,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20.1.31.을 시작으로 매년 1.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부에 대한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8-403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4세)은 상대방(남, 47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7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등의 일을 하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건본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2019.1.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2021.2.28.까지 지급한다. 만일 청구인이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장래양육비로 2019.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지급은행 : ????은행 사건본인(1234-567-8910)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보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병원비 과다지출로 채무상환을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70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5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음반 사업을 하였는데, 적자가 지속되자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제난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 취업해 주방보조로 일하며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다액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알츠하이머까지 앓으면서 병원비 지출액이 더욱 커졌다. 신청인은 적은 소득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다보니 도저히 채무변제까지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친언니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다. 신청인의 두 자녀 중 한 명은 직업이 없고, 한 명은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으로 신청인을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청인은 병원비로 인한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2. 7.)

채무자를 면책한다.

수십 년간 아내를 폭행하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8-41

담당 : 김정화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68세)와 피고(남, 73세)는 1974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1974년경 원고가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피고가 친구를 데리고 와 술상을 빨리 안 차린다며 원고를 걷어찼다. 이를 본 친구가 피고를 말리자, 피고는 친구의 허벅지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1988년경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피고는 술에 취하여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원고를 마구 폭행하였다. 2006년경 피고는 시모의 제사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다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시비를 걸어 원고는 추운 겨울 밤 집밖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2017년 8월경 피고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원고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쳐 현재까지 큰 아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주식으로 탕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1.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64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1999년경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지인과 함께 인쇄소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제 불황 및 원활하지 못한 수금으로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나 역부족이었고,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었다. 그러다 2013년경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을 앓았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건강 악화 및 기억력 감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2015년경 폐업과 동시에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채무변제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5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2.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8-8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59세)는 1990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6년 후 피고는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얼마 못가 모든 투자금을 탕진하였다. 피고는 빚을 더 내어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체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받았다. 2002년경 경기불황으로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2010년경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취업해도 몇 달 만에 그만두기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사업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6년 9월경 가출을 하였고,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8.6.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해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8-349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남, 41세)과 상대방(여, 42세)은 2003년 11월 협의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사건본인(여, 18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상대방의 외도와 가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두 번의 혼인신고와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이 중학생일 때,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상대방에게 양육을 부탁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부족하지만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뒷바라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약 16년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또한 사건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결정된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2018. 12. 2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2,400만 원을 2019.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9년 4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4월 8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4월 25일(목)	4.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5월 23일(목)	5.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
6월 27일(목)	6.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2월 시작)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4월 11일	불안 : 편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매일 만나는 내 속 경보기가 있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5월 9일	홀가분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만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가정상담4월 표지 2019.4.10 4:4 PM 페이지1 CTP-5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생활법률강좌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